

베드로의 서신서들에 나타난 은혜

3/31 월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바에 따라 선택하시고, 그 영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벧후 1:2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요 1:14, 16-17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 55:1 “자,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들로 나아오너라. 너 돈 없는 이도 나아오너라. 와서 사 먹되 정녕,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고후 1:8-9, 12

8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겪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는 이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번성하는 은혜에 대해 말한다(벧전 1:2, 벧후 1:2). 하나님과 주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번성한다. … 믿는 이가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한 이가 될 때, 은혜가 여러 배로 증가하는 번성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것처럼 은혜도 무한하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였지만 단지 그분을 조금 얻었을 뿐이다. 여러 해에 걸쳐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량에 의해 무게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우리 안에서 증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 장, 3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번성하며, 가득 차서 넘친다. …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모든 제한을 초월한다. 이러한 풍성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풍성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롬 5:15 하, 20 하).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할 때, 또한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공급받는다. 고린도후서 9 장 8 절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서 언제나 충분히 만족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온갖 선한 일을 넘치게 행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공급받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번성하는 은혜를 누린다(벧전 1:2 하, 벧후 1:2, 계 22:21).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 두 권 모두에서 이 번성하는 은혜를 언급한다. 이 은혜는 죽은 은혜가 아니라, 살아 있어 번성하는 은혜이다. 따라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번성하고 있다.(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 장, 41, 46 쪽)

바울은 자주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은혜와 평안이 번성하는 것에 관해 두 차례 언급한다(벧전 1:2, 벧후 1:2). … 베드로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은혜가 그들에게 번성하기를 원했다. 여러분은 은혜가 번성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우리 중 대부분은 이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베드로가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은 그만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심지어 바울도 베드로만큼 독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은혜와 평안이 번성하는 것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번성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우리에게 현재 있는 것과 동일한 또 다른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이 번성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가 번성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은혜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얻은 은혜가 번성하는 것이다.

번성하는 은혜라는 사상을 기초로 삼아 베드로는 더 전진하여 베드로전서 4 장 10 절에서 다양한 은혜에 대해 말한다.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명명한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 다양한 은혜는 바로 은혜의 여러 방면과 여러 범주이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 장 10 절에서 한 번 더 은혜를 언급하는데, 이 절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 말한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는 은혜에 관한 네 가지 독특한 표현, 즉 ‘생명의 은혜’와 ‘번성하는 은혜’와 ‘다양한 은혜’와 ‘모든 은혜’를 본다. 생명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번성한다. 그런 다음 그것은 다양한 은혜가 되고 결국에는 모든 은혜가 된다. 그 결과 우리는 은혜를 그저 한 방향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얻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은혜를 하늘과 땅에서,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얻는다. … 여러분에게 네 명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네 방면에서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더 많은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더 많은 방면을 누리게 될 것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5-16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년, 1권, 신약의 은혜, 1, 3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20장

4/1 화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1:10-11

10 여러분이 얻을 은혜에 대하여 예언한 신언자들이 이 구원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보았는데,

11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그 후의 영광들을 미리 증언하신 것이 어느 때 어떠한 시기를 가리키는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엡 1:6-8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7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받고, 범죄가 용서되었습니다.

8 하나님은 온갖 지혜와 현명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어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 장 10 절에서 … 베드로도 주님처럼(눅 24:25-27, 44-46) 구약의 신언자들의 글을 사용하여, 신약의 구원에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확증했다.

베드로전서 1 장 10 절에서 … ‘은혜’는 ‘구원’과 동의어이다. 베드로전서 1 장 13 절에 언급된 ‘은혜’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1 장 14 절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가 충만하였다고 말한다. 이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에서 바울이 세 번 언급한 은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가 부활 안에 살 수 있도록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부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이끄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1 장 10 절은 믿는 이들이 얻을 은혜, 곧 믿는 이들의 혼의 구원에 관해 부지런히 찾고 살펴본 신언자들이 예언한 은혜를 언급한다. 베드로전서 1 장 10 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은혜의 방면은 요한복음 1 장에 언급된 은혜의 방면과는 다르다. 요한은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은혜가 충만하였다는 것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는 것을 말한다(요 1:14, 17).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심으로 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은 없지만 장차 올 은혜가 있다고 말한다. 이 은혜는 구약에서 직접 언급된 적은 없지만, 믿는 이들의 혼의 구원(벧전 1:9)에 관해서 부지런히 찾고 살펴본 신언자들이 이 은혜에 대하여 예언했다. … 베드로는 믿는 이들의 혼의 구원을 위한 은혜에 대해 말한다. 베드로가 가르치는 은혜는 우리의 영이나 몸을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혼을 구원하는 은혜이다. … 사람은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막 8:36). 이것은 혼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러분이 자신의 혼이 구원받도록 온 세상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4 장, 110, 112 쪽)

베드로전서 1 장 12 절에서 …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영광들을 가리킨다. 구약의 신언자들이 신약의 믿는

이들에게 전파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들과 영광들이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파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복음을 전했던 이들은 신약의 사도들이었다. 신언자들은 살펴보고 예언했으며,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영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약에서 실지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다. 신언자들이 예언한 것과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모두 그 영의 적용하심이었다. 이것은 그 영께서 두 가지 수단 곧 신언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전파에 의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 그 영께서 여러분에게 현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적용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 나는 다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다양한 영광들을 전파한다. 각각의 전파가 그 영의 적용하심이다. … 나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영의 적용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나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바라볼 때 행복하다. 이 사역을 통해 그리고 그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모습을 볼 때 내 심장은 뛴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격려한다.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들만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포함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87-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2, 7-9

4/2 수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1:13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의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깨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여러분의 소망을 온전히 두십시오.

딤후 1:9-10

9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딤전 1:14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하셨습니다.

계 22:21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딛 2:11-12

11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적인 욕망을 거절하게 하고, 현시대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며,

빌 4: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 장 13 절은 믿는 이들이 그들의 소망을 온전히 두고 있는 은혜에 대해

말한다. 매일같이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 이것이 다음 시대에 주님의 누림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이들을 위한 혼의 구원이다 (마 25:20-23). 이 은혜는 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올 것이다. 이 은혜는 구약의 신언자들이 연구한 것이고, 신약의 믿는 이들인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4 장, 112-113 쪽)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공급이다(딤후 1:9-10). …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은혜는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밝히드러났고 적용되었으며, 주님은 첫 번째 오심으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히 9:26). … 우리에게 주시기로 정해진 이 은혜는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왔다. 이 은혜는 단지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한 인격, 즉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삼일 하나님이라는 인격이다. 이 은혜는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왔고,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64, 26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1 장 13 절에서 베드로는 …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두라고 명령한다. 이 소망은 거듭남을 통하여 갖게 된 살아 있는 소망이다(3 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우리의 살아 있는 소망을 온전히

두어야 한다. 확실히 이 은혜는 단지 우리가 거저 받는 호의가 아니라 혼의 구원(벧전 1:5, 9-10)을 가리키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결이 될 것이다. 은혜는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왔다(요 1:17). 이 은혜는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 완결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은혜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에 대해 누리는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미리 맛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아직 완전한 맛봄이 아니다. 이 시대는 미리 맛봄의 시대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한 맛봄을 누릴 것이다. 미리 맛봄을 누리는 동안 우리는 장차 올 완전한 맛봄에다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 … 장차 올 완전한 맛봄은 이 유일한 은혜의 완성이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 장 13 절의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 즉 출현하시는 것에 관해 말한다. … 현재 우리는 휘장 아래에서 주 예수님을 미리 맛봄으로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휘장이 걷힐 때가 오고 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휘장 아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터무니없는 짓이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우리의 누림은 감추어져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체험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관해 알 길이 전혀 없다. 그러나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예수님을 줄곧 누려

왔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나타남은 삼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장차 올 은혜일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미리 맛봄으로 누리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그분께서 우리의 완전한 맛봄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을 것이다. … 우리가 미리 맛 봄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즉 출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두어야 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100-10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2-24 장

4/3 목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2:19-21

19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20 여러분이 죄를 짓다가 매를 맞고 견딘다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견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은혜입니다.

21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행 11:23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요 7:38-39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엡 1:14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가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 유업의 보증이 되시어, 그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후 4: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고후 13: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 때문에 부당한 고통, 곧 불의한 대접을 받아도 기꺼이 슬픔을 참는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베드로전서 2장 19 절에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charis)이며, 여기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동기와 우리 생활에 나타난 이 신성한 생명의 표현을 가리킨다. 그러한 표현은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은혜롭고 기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된다(벧전 2:20).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9, 180-181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의식’(벧전 2:19)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양심’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안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베드로전서 2 장 19 절의 문맥에 따르면, 부당한 고난은 틀림없이 믿지 않는 주인들이 가한 학대일 것이다. 그 주인들은 믿는 하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을 반대하고 박해했다(벧전 3:14-18, 4:12-16).

베드로전서 2 장 19 절과 20 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행실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행실의 문제이다.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생활은 매우 힘들 것이다. 특별히 인척들과 관련하여, 그중에서도 시어머니와 장모와 관련하여 그러할 것이다. … 남편은 장모로 인해 그리고 아내는 시어머니로 인해 힘겨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결혼한 부부는 시어머니나 장모와 함께 살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지라도 결혼 생활에서 문제에 직면하리라는 것이다. …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성질과 기질과 습관과 성장 배경과 이해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남편에게는 여러 일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있고, 그것은 아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자신의 습관과 기질이 있듯이, 남편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골치 아픈 다섯 가지 요인, 즉 성질과 기질과 습관과 성장 배경과 사고방식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매우 많이 사랑하고 그들이 고상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할 것이다. 최소한 그들은 가끔은 그러한 상황을 참을 수 없을 것이며 서로 말다툼할 것이다. 그럴 때 시어머니나 장모가 찾아온다면 그녀는 그 상황이 완전히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시어머니나 장모는 품위가 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기조차 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에게 신성한 생명이 있고, 그들이 이 생명에 따라 산다고 가정해 보자. 성질과 기질과 습관과 성장 배경과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남편과 아내의 내적 동기가 된다. 더욱이 이 은혜는 그들의 생활의 표현이 된다. 시어머니나 장모가 두 부부의 생활 방식을 지켜본다면, 그것이 고상하고 유쾌하며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베드로는 … “그것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겨 주셨다고 말한다. 은혜와 본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한 믿는 이 안에서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이 은혜임을 알아볼 때, 이것은 그 믿는 이가 본이신 그리스도의 복사판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표시이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생산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은혜이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 방식은 은혜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생산이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9, 181-182 쪽, 메시지 20, 18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9-20

4/4 금요일

아침의 누림

벧전 3:7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벧전 4: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벧전 5: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약 4:6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 138:6 여호와는 높으셔도 비천한 이들을 돌아보시며 멀리서도 거만한 이들을 알아보십니다.

시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를 불들어 주시리니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리라.

잠 29: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나 겸허한 영을 지닌 이는 존귀를 얻게 된다.

베드로는 또한 믿는 이들이 강하는 약하든 받게 되는, 모든 믿는 이의 유업인 생명의 은혜에 대해 말한다(벧전 3:7). 베드로는 아내가 더 약한 그릇으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므로, 믿는 형제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라고 가르쳤다. …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며, 그 분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벧전 4:10)는 … 성도들이 서로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가리킨다. 여러분은 나에게 한 종류의 은혜를 공급하고, 나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종류의 은혜를 공급한다.(위트니스 리 고봉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 장, 39-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은혜는 여러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그녀가 천성적으로 순종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완고한 사람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여러분의 아내가 순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녀가 완고한 사람일 경우만큼의 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자녀가 없다면 여러분은 자녀와 관련된 은혜의 방면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오, 우리 모두는 이 다양한 은혜를 알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5 장 5 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고 말한다. …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사람을 대적하신다. 교만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대신 우리는 겸손의 앞치마로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16 쪽, 메시지 33, 306-308 쪽)

교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타락한 본성의 한 속성이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속성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성들이 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며, 그러한 우리가 소유한 첫 번째 속성은 교만이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여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도 주님은 그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은 바울의 육체에 사탄에게서 온 가시를 허락하셨다(고후 12:7). 그 가시를 두고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세번 간청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12:9)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바울아, 나는 그 가시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기 때문이다. 나는 네게 충분한 은혜를 줄 것이다.”

교만은 파멸을 의미한다. … 겸손이 온갖 종류의 파멸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져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약 4:6). 여러분이 겸손하다면 은혜가 온다. 하지만 교만하다면 은혜는 사라진다. 즉, 여러분이 은혜를 가로막은

것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4 장, 84 쪽)

베드로는 모든 은혜를 언급하면서, 믿는 이들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신다고 말한다(벧전 5:10). 이 모든 은혜는 온전하게 하는 은혜이고, 견고하게 하는 은혜이며, 강하게 하는 은혜이고, 터를 튼튼하게 하는 은혜이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신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 거의 모든 날이 내게는 고난받는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신다.

사람들이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 중 어떤 것들은 참되지 않다. 사실상 그것들은 거짓된 것이다. 베드로전서 5 장 12 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10 절의 하나님의 모든 은혜이며, 믿는 이들은 이 은혜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9 장, 4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2-23, 27, 33-34; 위트니스 리 고봉메시지, 2 권,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되며 그 책임을 이행하는가, 3-4 장

4/5 토요일

아침의 누림

벧후 3:18 여러분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엡 2:7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벧후 1:3-4

3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미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4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벧후 3:14-15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고대하고 있으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십시오.

15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또한 자기가 받은 지혜에 따라 여러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베드로후서 3 장 18 절은 우리가 은혜로 자라야 한다고 말한다. 은혜는 신성을 지니시고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친 하나님 자신이다. 은혜의 이 모든 요소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다. 은혜는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안에 거처를 만드시고, 우리 속에 형상을 이루시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는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분께 있을 영광을 위해 이러한 은혜로 자라야 한다. 베드로후서 3 장 18 절은 사도 베드로의 서신서들의 끝맺는 말로서, 베드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된 것임을 가리킨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4 장, 11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믿는 이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의 완결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다(엡 1:6-8, 22-23).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어 그분 자신 안으로 되돌리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범위이시며 요소이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되어 범위와 요소이신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되돌려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요소를 누리고, 그 결과 그분의 요소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 에베소서 1 장 22 절과 23 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운행되게 하셨던 그 능력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켰으며,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초월하시고 하늘들의 영역으로 오르시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원수를 짓밟으시며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시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능력이 ‘교회에게’ 즉 교회를 향해 전달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 큰 능력을 전달받는다. 머리이신 분께 이러한 큰 능력이 있으므로, 그분의 몸 또한 이러한 큰 능력을 전달받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된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의 산물은 하나님의 시(詩)이다(엡 2:10 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사람은 그분의 시가 아니다. 그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시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의 산물은 하나님의 시이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전시한다(엡 2:7). … 이 은혜는 풍성하고, 가득차서 넘치며, 번성하고, 증가한다.

우리는 한 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시해야 하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선한 일들(엡 2:10)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곧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짚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고, 그에게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다. 바울은 은혜, 곧 자신이 체험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처럼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일에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취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 전체가 마땅히 이러해야 하며, 단지 약간의 합당한 일과 선한 일만을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생활의 총체는 전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과 악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며, 전적으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생활에서 우리는 오직

생명만을 원칙으로 삼는다. 무엇이든 생명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반대로 무엇이든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다. 이 생명은 실질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요소이신 아들 하나님과 본질이신 영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은혜이다. 즉 이 생명은 바로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생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하시어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완결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4 장, 80-81, 90-9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의 율법과 은혜, 2, 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4/6 주일

아침의 누름

고후 12:7-9

7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8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엡 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패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 21:15-17

15 그들이 아침을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이십시오.”

16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가 예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

17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예수님께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이십시오.”

벧전 1:8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뵈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지금도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며,